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WEEKLY REPORT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1
JULY 23 2021

발간년월 2021년 7월 23일 (통권 제18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 '동방경제포럼', 9월 2일~4일까지 개최 확정
- 러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토지 1만 8천건 활용
- 러 아스트라한 주 '카스피 클러스터:현재와 미래'
-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 항만, 곡물 터미널 가동
- 러, 세계 최초 무인선 시범 운행 성공적으로 끝내
- 올 상반기 북한 해운 동향…중·러 지역 운항 재개

주요 통계

-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 '동방경제포럼', 9월 2일~4일까지 개최 확정

■ 제6차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a)b)]

-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이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다고 이 포럼을 운영하는 로스콩그레스재단(Roscongress Foundation)이 밝혔음
-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되었으나 올해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
- 러시아는 지난 6월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을 진행하였으며, SPIEF 역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바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SPIEF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참석을 요청하였음

■ 푸틴 대통령, 동방정책 추진 및 2015년부터 '동방방경제포럼' 개최[c)]

- 푸틴 대통령은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집권 3기(2012~2018년) 최대 국제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집권 4기(2018~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음
-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3대 경제포럼(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소치 국제투자포럼) 중 하나로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2019년 제5차 '동방경제포럼'은 '극동 : 가능성의 범위를 확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60개국 8,500여 명이 참석함
- 2021년 제6차 '동방경제포럼'의 주제는 '극동:개발의 지평(The Far East-Development Horizons)'이며, 토론 주제는 '새로운 경제: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The New Economy: What Changes and What Stays The Same)'와 '극동: 새로운 도전과 기회(The Far East: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es)'임
- 우리나라도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참가국으로 제1차 포럼에는 산업통상부 장관, 2차와 3차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제4차에는 총리, 제5차 포럼에는 경제 부총리가 참석하였음

그림. 제6차 동방경제포럼 프로그램

자료: https://forumvostok.ru/en/programme/architecture/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06)

참고자료

a) https://tass.com/politics/1306805(2021.7.21 검색)
b) https://tass.com/economy/1314833(2021.7.21 검색)
c) https://forumvostok.ru/en/(2021.7.21 검색)

러시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토지 1만 8천건 활용

그림. 러시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자료:https://erdc.ru/news/dalnevostochnyy-gektar-18-tysyach-uchastnikov-programmy-zadeklarirovali-deyatelnost-na-uchastkakh-po/

■ 하바롭스크 지역 주민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공사에 따르면,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프로그램 참여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극동지대를 활용하여 집을 짓고 농사를 하는 등 개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사업의 경우 지대를 분배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후 토지의 활용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데, 2021년 7월까지 보고된 극동 지대 활용 활동 건수는 1만 8,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용자 보고 결과에 따르면 42%는 농업, 38% 주택 건설, 7% 관광개발, 10% 사업 활동, 나머지 3%는 기타 과학, 환경, 교육 분야 등에 활용되었음
-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 가운데, 하바롭스키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전체의 26%), 프리모리예(23%), 사할린 주(15%)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프로그램 참여자의 대부분이 극동지역 주민

- 타 지역민들은 분배 받은 토지를 개인 주택 건설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37%), 31%는 농업, 16%는 관광목적, 10% 사업, 6% 기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참고로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를 분배 받은 이용자는 그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이용 현황을 우편이나 러시아 연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이수민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a) https://erdc.ru/news/dalnevostochnyy-gektar-18-tysyach-uchastnikov-programmy-za deklarirovali-deyatelnost-na-uchastkakh-po/(2021.7.19. 검색)

러 아스트라한 주 '카스피 클러스터:현재와 미래'

그림. 로토스 경제특별구역

자료: http://www.morvesti.ru/analitika/1692/89945/

■ 2020년 러시아 아스트라한 주 정부, '카스피 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 카스피 클러스터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로토스(Lotos)' 특별경제구역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항만경제특구(올랴항)를 통합한 공간임
-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은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이탈리아, 이란 등 국제적 기업이 입주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16개 기업은 300억 루블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 중임
- 카스피 클러스터는 유럽과 이란 및 인도를 연결하는 '남북' 국제운송회랑의 화물 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25억 루블 이상이 투입하여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임
- 카스피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통관절차를 포함해 각종 세금 및 관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카스피 클러스터는 '남북' 국제운송회랑 통과 지역에 조성 및 운영

- 해당 지역은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물류 루트인 '남북' 국제운송회랑이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임

■ 아스트라한 주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랴항에 특별경제구역 조성

- 올랴 항만은 투자자 유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통과화물 물동량 증가, 세수 증가 등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물류 허브임
- 올랴 항만 특별경제구역의 입주기업은 다른 경제특구와는 달리 부가세(VAT) 적용을 받지 않으며, 관세자유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토지 및 교통 등 관련 세금율을 낮게 적용 받는 혜택이 있음
- 올랴 항만 특별경제구역은 약 250억 루블 이상의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약 100억 루블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임

그림. 기존 운송로와 남북 국제운송회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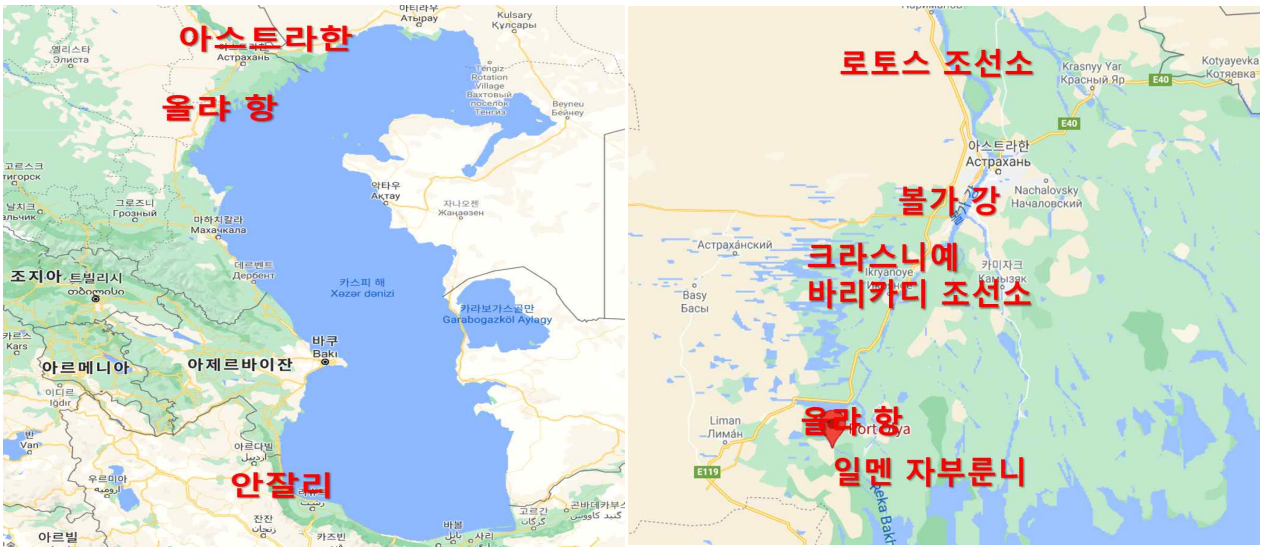
자료: http://www.morvesti.ru/analitika/1692/89945/

■ 'PLC 카스피' 사(社)가 카스피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주요 투자자임

- 이 사업의 주요 투자자의 하나는 올랴 항만 특별경제구역에 현대식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PLC 카스피 사임
- 올랴 항만 특별경제구역의 입주기업으로 로토스 조선소, 겍사-로토스(Geksa-Lotos), 로자(Roza) 등이 있음
- 로토스 조선소는 러시아의 연합조선공사(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산하에 있는 남방 선박 및 선박수리센터(South Center for Ship and Ship Repair)에 딸린 조선소임

- 겍사 로토스 사(社)는 러시아 주요 제조업체인 겍사의 자회사이며, 로자 사(社)는 이란 골랑(Galrang) 홀딩에 속한 업체임
- 올랴 항은 12개의 선석이 있으며, 선석 길이는 1,877m이며, Ro-Ro선을 위한 터미널 또한 있음
- 외국 선사의 입항이 가능하고 화물 및 승객 검문소가 있으며, 콜드체인 설비 또한 구축되어 있음
- 올랴 항은 연간 약 4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020년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60만 46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했음
- 주로 이곳에서 처리한 화물 종류는 곡물이며, 2020년 기준으로 48만 7,800톤을 처리했음
- 'PLC 카스피' 사(社)는 올랴 항의 8번, 9번 선석에 필요한 하역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항만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지역(일멘 자부룬니, Ilmen Zaburunny)에 6개의 컨테이너 터미널 및 기타 터미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 유럽 기업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2031년 물동량은 약 79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산됨
-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함부르크 항만 컨설팅(Hamburg Port Consulting)사는 2050년까지 올랴 항의 물동량이 1,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림. 조선소 및 올랴 항 위치



자료: 구글맵을 이용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작성

■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에는 조선분야 관련 기업 5개 사(社)가 입주

- 아스트라한 주는 대규모 조선소('크라스니예 바리카디(Krasnye Barrikady)' 조선소) 재건 계획을 통해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을 조선소 구역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임

– 항만 특별경제구역 조성 사업을 통해 ‘남북’ 국제운송회랑이 개발되고, 카스피해 물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스트라한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컨테이너선 및 화물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 연합조선공사는 카스피해 항해를 위한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사업을 진행 중임

■ 볼가-카스피해 루트의 선박 운항 능력 제고 위해 준설작업 추진

– 주 정부는 항만 인프라와 클러스터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준설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건조사업은 아스트라한 조선소가 추진하고 있음

– 위 사업과는 별도로 러시아 ‘로토스’ 조선소는 오브(Ob)~이르띠쉬(Irtysh) 구간과 세베로(Severo)~드빈스키(Dvinsky) 지역을 구간은 담당하고 있는 내륙수로 관리청 요구에 따라 준설선 4척을 건조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음

– 아스트라한 주의 산업자원부는 내륙수로~해운을 연계한 루트를 개발하는데 있어 수심작업용 선박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함

– 산업자원부는 재정이 확보될 경우 추가적으로 16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음

그림. 조선소 및 올랴 항 위치

자료: 구글맵 기반 KMI 작성

■ 러시아의 코틀린(Kotlin) 선사는 컨테이너 운송로 개발에도 착수

- 코틀린 사(社)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카스피해의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 러시아 교통부, 아스트라한 주 정부의 지원으로 아스트라한에서 대형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음
- 러시아가 '남북' 국제운송회랑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카스피해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항만 사이를 직접적으로 해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은 이란과 다수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제4차 러시아-이란 통상경제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안잘리(Anjali) 경제자유구역, 차바하르(Chabahar) 경제자유구역과 협정을 체결했음
-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1차 카스피 경제포럼에서 로토스 특별경제구역 관리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인접국과의 경제협력도 늘어나고 있음
- 그 밖에도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은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Khorgos) 경제자유구역과 우즈베키스탄의 카자라스프 경제자유구역과 협정서를 체결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analitika/1692/89945/(2021.7.20. 검색)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 항만, 곡물 터미널 가동

그림. 로스토프 나 도누 항만의 곡물 터미널

자료: https://en.portnews.ru/news/315138/

■ 연간 100만 톤 곡물 저장 및 처리 가능, 2단계 터미널 공사도 진행

- 러시아 로스토프 나 도누 복합항만에 연 100만 톤의 곡물을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곡물 터미널 건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되고 있음
- 이 사업에는 모두 18억 루블이 투입될 예정인데, 로스토프 나 도누 항만 행정책임자인 알렉세이 로그비넨코(Aleksey Logvinenko)는 이 곡물 터미널 사업으로 65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음
- 곡물 터미널의 건설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예측되던 곡물 수용량은 14만 1,000톤이었으며, 철도 운송 화물 수용량은 시간당 최대 800톤, 트럭 화물은 시간당 최대 600톤, 해상 화물은 시간당 최대 800톤, 곡물을 실은 전기 동차는 하루에 200대를 처리할 수 있음
- 레나트 니아즈바예즈(Renat Niazbayez) 로스토프 나 도누 복합항만 LLC 총책임자는 2017년에 처음 항만 가동이 되었을 당시 항만 처리량이 80만 톤이었는데, 2020년 들어 135만 톤을 처리하였고, 2021년에는 160만 톤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현재 로스노프 나 도누 항만은 포워딩 및 하역·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총 830미터 규모의 계류장 5개, 9킬로미터 길이의 철로, 7만 평방미터의 야외 및 실내 화물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이수민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a) https://en.portnews.ru/news/315138/(2021.7.19. 검색)

러, 세계 최초 무인선 시범 운행 성공적으로 끝내

■ 시스테마 및 시트로닉스, 무인선박 플랫폼 개발[a)]

- 러시아의 자율 운항선박 개발 및 시범 운항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러시아 투자기업 시스테마의 그 동안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즉, 2015년 러시아의 투자 기업인 시스테마(Sistema)가 크론슈타트 그룹(Kronshtadt Group)을 48억 루블에 인수하였음
-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시스테마의 자회사이자 무인 선박 플랫폼 회사인 시트로닉스(Sitronics)도 디지털 및 무인 항법 솔루션 회사인 크론슈타트 테크놀로지(Kronshtadt Technologies)를 인수하였음
- 시트로닉스의 자회사인 해양 지능형 솔루션의 선두 개발업체 시트로닉스 케이티(Sitronics KT)는 회원사 스테오르(Stéor<舊 크론슈타트Kronshtadt>)와 함께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한 무인 항해 플랫폼을 독점으로 구축하였음
- 이 플랫폼은 선박 제어 시스템, 디지털 네비게이션, 지리 정보 관련 시스템 및 장비, 다양한 목적의 시뮬레이터, 멀티미디어와 상호작용 시스템이 가능한 해양 지능형 솔루션으로 선박에 자율 주행 및 가상 환경 시스템을 제공해 선사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음
- 시트로닉스 케이티의 경영책임자인 안드레이 라지오노프(AndreyRodionov)는 미래에 개발될 플랫폼은 자율 제어 시뮬레이터를 넘어 무인 선박 시스템의 학습을 위한, 일종의 가상 환경 교육 시스템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2019년, 마리넷(Marinet)의 후원으로 러시아 해운 및 기술 회사, 연구 센터와 여러 대학이 러시아에서 대규모 자율 항해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시트로닉스 케이티(Sitronics KT)가 설립자로, 스테오르(Stéor)가 참가자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함
- 2020년 11월, 크론슈타트 테크놀로지는 가상 환경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무인 항법 기술 플랫폼 1단계를 완료함
- 플랫폼 개발 자금은 약 4억 3,000만 루블에 달했으며, 이 중 60%는 정부 지원, 40%는 크론슈타트 테크놀로지의 예산 외 자금임

■ 아조프 해에서 1시간 동안 건화물선 시범 운항

- 2020년 12월 러시아 정부는 자율 항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지원 조치를 하였음

– 이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해운 회사는 크라스노다르(Krasnodar), 프리모르스키(Primorsky), 하바롭스크(Khabarovsk), 아스트라한(Astrakhan),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마가단(Magadan), 레닌그라드(Leningrad), 무르만스크(Murmansk), 로스토프(Rostov), 사할린(Sakhalin),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등의 11개 지역에서 자체 선박에 자율 항법 시스템을 장착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같은 조치 이후 2021년 5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아조프(Azov) 해에서 시트로닉스 케이티 선박의 원격 제어 및 자율 주행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탑재한 건화물선 폴라 안피사(Polar Anfisa)를 한 시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항함

– 자율 주행 선박 시범 운항에는 러시아 산업 무역부, 교통부, 연방 해양 및 하천 교통국(Federal Agency for Maritime and River Transport) 및 자율 주행 선박 소유자 등이 참석하였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김혜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pdud027@hufs.ac.kr)

참고자료

a) https://www.cnews.ru/news/top/2021-07-08_sitroniks_sozdaet_platformu(2021.7.15. 검색)

올 상반기 북한 해운 동향…중·러 지역 운항 재개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상 차단했던 대외무역, 3월부터 해상을 통해 재개[a)]

- 북한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2020년 북·중 무역액은 2019년(약 28억$) 대비 80.7%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
- 북·중 무역 금액은 2020년 9월 약 2,1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0월 약 170만 달러, 11월 약 130만 달러, 12월 500만 달러, '21년 1월 150만 달러, 2월 180만 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중 무역 금액은 2021년 3월 약 1,400만 달러, 4월 약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했으나 5월에는 약 346만 달러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경을 폐쇄한 상황이며, 올 3월부터 북·중 해상무역을 재개하였으나 교역 품목은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와 살충제, 건설자재 등이 대부분
- FAO(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부족 식량을 86만t으로 전망했으며, 북한은 농업 생산을 위한 필수 품목만 해상을 통해 수입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해상무역 재개가 육상운송 재개 등 무역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추적을 통해 북한의 선박 45척 이동 정황을 확인[b)]

- 북한 전문사이트 NKPro의 선박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3월 8척, 4월 9척, 5월 10척, 6월 18척 등 모두 45척의 북한 연관 선박이 북한 인근 해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37척은 룽커우-남포(14척), 다롄-남포(7척)등 중국을 왕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 동해(청진, 단천)에서 서해(남포, 송림)로 운항한 선박이 7척,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진을 운항한 선박도 1척인 것으로 확인

■ 5월에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서 48km 인근서 북 화물선 청봉호 침몰[c)]

- 이 같은 상황에서 5월 22일 오후 2시 32분 경 5,500t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호가 침몰했으며, 승조원 21명은 인근을 지나던 북한 선적 유조선 '유정2호'가 구조
- 청봉호는 약 6,500t의 철재를 싣고 동해 청진에서 서해 송림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음. 청봉호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외신 등은 청봉호의 불법 무역 활동 연계

가능성도 의심

– 청봉호는 1989년에 건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청봉호와 같이 북한 선박들은 대체로 노후한 데다 UN제재로 인해 선박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만성적 유류 부족으로 과적도 일상적일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 선박의 해상사고 가능성은 상존함

그림. 침몰 직전의 청봉호

자료: http://www.thecommoditie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5,

* 본 원고는 『KMI북한해양수산리뷰』, 2021.2호(6월 30일 발간)에 실린 필자의 "2021년 상반기 북한 해양수산 동향" 중 일부를 발췌·편집한 글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307&idx=6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진희권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hkjin@kmi.re.kr/051-797-4706)

참고자료

a) https://www.nknews.org/pro/after-serious-drops-in-trade-north-korean-ship-activity-surges-near-china/?t=1634464932660(2021.7.19 검색)
b)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307&idx=6(2021.7.19 검색)
c)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video-sanctioned-north-korean-freighter-sinks-off-japan(2021.7.19 검색)

주요 통계

표.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3.03 (+9.3%)**	6.25 (-5.4%)	19.28	+3.9%
북극해	2.42 (+0.7%)	5.16 (-2.7%)	7.58	-1.7%
발트해	10.18 (+6.4%)	11.02 (-10.7%)	21.2	-3.4%
아조프-흑해	9.64 (+11.3%)	13.24 (-3.6%)	22.88	+2.2%
카스피해	0.2 (-30.2%)	0.41 (+1.4%)	0.61	-12.2%
합계	**35.43 (+8.0%)**	**36.12 (-6.0%)**	**71.55**	**+0.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랴,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2021.7.1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5503/(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272,874.7	80,039.2	220.6	38.8	273,095.3	80,077.9
25-27	광물 제품	1,243,473.0	33,684.1	347.6	0	1,243,820.7	33,684.1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104,647.2	33,139.7	339.7	0	1,104,986.9	33,139.7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970.9	90,992.8	324.9	21.7	4,295.8	91,014.5
41-43	가죽원료모피 제품	21.3	1,727.1	0	1.5	21.3	1,728.6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6,348.1	9,165.0	265.5	0	96,613.7	9,165.0
50-67	섬유.섬유제품 및 신발	247.7	27,324.9	0.3	37.5	248.1	27,362.5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2,071.0	82,510.9	97.0	929.2	52,168	83,440.1
84-90	기계류	73,280.6	421,790.6	116.7	50.1	73,397.3	421,840.7
68-71, 91-97	기타	201,712.5	54,468.0	769.6	80.7	202,482.3	54,548.7
	합계	1,944,000.0	801,702.4	2,142.3	1,159.5	1,946,142.2	802,861.9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190	218.7	-	-	-	-	-	-	190	218.7	-	-
0303	냉동수산물	73,852.9	99,954.5	1,698	5,144.4	0	0.0	-	-	73,853.0	99,954.5	1,698	5,144.4
03031	연어	0	7.2	-	-	0	0.0	-	-	0.0	7.2	-	-
030331	광어	257	855.4	-	-	-	-	-	-	257	855.4	-	-
030332	가자미	156	171.9	-	-	-	-	-	-	156	171.9	-	-
030339	기타 넙치류	788	648.8	-	-	-	-	-	-	788	648.8	-	-
030351	청어	5,139	3,472.4	-	-	0	0.0	-	-	5,139	3,472.4	-	-
030363	대구	5,379	12,000.8	-	-	-	-	-	-	5,379	12,000.8	-	-
03036 70000	명태	55,038	58,037.4	-	-	0	0.0	-	-	55,038	58,037.4	-	-
03038 93	농어	13	38.1	-	-	-	-	-	-	13	38.1	-	-
030391	알류	4,536	22,621.9	-	-	0	0.0	-	-	4,536.5	22,62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96	402.6	-	-	-	-	-	-	296	402.6	-	-
0304	생선 필레	7,182	21,605.6	82	420.9	0	0.0	-	-	7,182	21,605.6	82	420.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	0.1	104	669.4	-	-	-	-	0.0	0.1	104	669.4
0306	갑각류	5,599	134,574.5	57	389.2	-	-	-	-	5,599	134,574.5	57	389.2
030614, 030633, 030693	게	5,145	130,487.3	-	-	-	-	-	-	5,145.0	130,487.3	-	-
0307	조개류	498	1,254	-	-	0	0.0	-	-	499	1,254	-	-
03072	가리비	201	432.6	-	-	-	-	-	-	201	432.6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119	355.3	61	300.6	0	0.0	-	-	119	355.3	61	300.6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747	2,437.3	-	-	-	-	-	-	747	2,437.3	-	-
03081	해삼	16	43.1	-	-	-	-	-	-	16	43.1	-	-
03082	성게	731	2,392.0	-	-	-	-	-	-	731.0	2,392.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